

역사화해를 위한 도구로서의 역사교육

요크 반리오드

네덜란드, 유로클리오(EUROCLIO) 사무총장

저는 사람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는데 소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역사교사들에게 학교 역사과목은 젊은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지만 난해한 주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이해시키는데 나름 소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이번 컨퍼런스가 연구결과를 논하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 연구성과에 대해 강의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몸소 체험했던 실전 경험의 결과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강의를 불가피한 학문적 거리감이 부족하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엘리자베스 콜 Elisabeth Cole 의 [폭력적 과거에 대한 강의 *Teaching the Violent Past*], [유고슬라비아 논쟁 대응을 위한 학계 계획 *Scholars Initiative on Confronting the Yugoslav Controversies*] 등 다양한 학계 자료를 참고해 저의 경험을 비추어보고 포괄적 의미에서 유로클리오의 방법론을 살펴보겠습니다.¹

역사와 역사교육에 관한 수많은 이론은 역사학습과 역사강의를 통한 화해에 관해 다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념을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면 방대한 자료가 쏟아져나옵니다. 그러나 이러한 아이디어를 실제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정보는 매우 미미할 뿐 아니라 접근방식의 이행에 관한 경험적 데이터 또한 거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¹ 콜Cole(교육), 폭력적 과거에 관한 강의, 역사교육과 화해 *Teaching the Violent Past, History Education and Reconciliation*, 2007; 찰스 잉그레오Charles Ingraio와 토마스 에멀트Thomas A. Emmert (교육) 유고슬라비아 논쟁 대응, 학자간 계획 *Confronting the Yugoslav Controversies, A scholars' initiative*, 퍼듀대학출판, 2009

이러한 배경에서 저는 불가리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몰도바, 루마니아, 러시아-우크라이나, 터키 등 정치적, 인종적, 종교적 내부갈등을 겪는 지역에 관해 유로클리오의 실효적 방법론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또한 보스니아,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그루지아, 마케도니아공화국, 세르비아 등 최근 폭력사태를 겪은 국가와 지역에 관해 유로클리오의 방법론도 연구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나서 유로클리오의 업무가 역사교육을 통한 화해의 모범이 될 수 있는지 질문해보겠습니다.

아동 및 청소년 교육은 사회의 책임입니다. 역사교육은 항상 젊은 세대에 국가적 유대감을 고취시키는데 이용되어 왔습니다. 20 세기 말 보스니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마케도니아, 몰도바, 그루지아의 내부갈등과 전 유고슬라비아의 지역갈등 등 유럽의 분쟁들은 최근의 혹은 먼 과거의 사건에 관한 역사적 해석이 공공토론 혹은 정치적 토론에서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후 역사교사들은 기존 역사교육 방식에 대해 객관적이고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봐야 하며 역사교사들의 책임감과 자질을 제고할 시기가 도래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1993 년 혁신적 역사교육개발 진흥 및 지원, 평화, 안정, 민주주의 부흥을 목표로 유럽역사교사모임인 유로클리오(EUROCLIO, the European Association of History Educators)가 탄생했습니다.² 유로클리오는 민주사회건설과 발전을 위해 역사교육의 건전한 활용을 장려하여 국가, 민족, 종교간 유대를 위해 노력합니다.

유로클리오는 상당 기간 동안 수많은 프로젝트를 통해 실천적 경험을 쌓아 혁신적 역사교육의 방법론을 정의 및 재정의할 수 있었고 이러한 방법론은 난해하고 민감한 논쟁 이슈를 다루는데 적용할 수 있습니다. 유로클리오의 업무는 세가지 축에 근거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혁신적이면서 현실적인 교재개발과 활용을 위해 전문성을 적극적으로 강화하는 것입니다. 둘째, 국가 내 그리고 국가간 네트워크를 구축합니다. 전 유럽국가와 세계 전역에 걸쳐 지속가능하고 전문적인 역사교사협회(History Educators Association)를 설립하고 발전시킵니다. 이 기구는 유로클리오의 각 국가 지부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 결과 1993 년 창립 이후 수천 명의 역사교사가 역사교육의 대안적이고 혁신적인 접근방법에 대해 훈련을 거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알바니아, 불가리아, 보스니아,

² www.euroclio.eu

크로아티아, 에스토니아, 그루지아, 마케도니아, 라트비아, 루마니아, 러시아, 세르비아 등 수많은 국가의 언어로 교재와 교육웹사이트가 개발되었습니다.

유로클리오의 불가리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몰도바, 루마니아, 러시아-우크라이나, 터키 등 정치, 종교, 인종적 내부긴장 상태에 있는 지역에서 많은 공헌을 했습니다. 또한 최근 과거에 폭력적 갈등을 겪은 보스니아,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그루지아, 마케도니아공화국, 세르비아와 같은 지역과 국가에서도 활동했습니다. 이러한 국가에서는 역사와 역사교육이 과거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세심하게 방법론을 고안하고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마련하는데 있어서 소속이 다른 전문가가 모여 협력을 통해 성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지역 전문가들이 지역의 필요부문에 대해 합의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요청한 경우에만 유로클리오의 활동과 프로젝트가 착수됩니다. 유로클리오의 시간이 갈수록 협력적 업무와 저술의 중요성에 대해 더욱 깊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 지역 상황은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 유고슬라비아에서 효과가 있던 접근방법은 최근 그루지아 프로젝트에서는 사람들에게 팀활동의 부가가치를 깨닫게 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³ 유로클리오의 프로젝트는 프로세스 지향적이며 전문인력강화가 혁신과 변화의 근본적인 바탕임을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유로클리오의 국경을 넘어선 국제적 시각을 지향하고 외부감독과 모니터링의 활용을 장려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유로프로젝트가 어떻게 훌륭한 시민의식을 위한 교육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까요? 상당 기간 동안 프로젝트의 경험을 통해 유로클리오의 역사교육 방법론을 정의하고 지속적으로 재정의하였고 이는 학교 역사과목의 대안적이고 혁신적인 방식으로 흥미를 자극하는 모델이 되었습니다.⁴ 여러 외부평가에서 우리의 방법론을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⁵ 2009년 보스니아,

³ <http://www.euroclio.eu/site/index.php/bosnia-croatia-serbia-regional-projects-303> 보스니아, 크로아티아, 세르비아 파트너와 유로클리오 프로젝트 참고 <http://www.euroclio.eu/site/index.php/projects-mainmenu-125/current-projects-mainmenu-32/georgia-mainmenu-91> 그루지아 유로클리오 프로젝트를 다음 웹에서 참고

⁴ <http://www.euroclio.eu/site/index.php/leaflet-3-methodology-background-material-898> 참고

⁵ 콜Cole(교육), 폭력적 과거에 관한 강의, 역사교육과 화해 *Teaching the Violent Past, History Education and Reconciliation*, 2007, 277페이지; 찰스 인그레오Charles Ingraio와 토마스 에멀트Thomas A. Emmert (교육) 유고슬라비아 논쟁 대응, 학자간 계획 *Confronting the Yugoslav Controversies, A scholars' initiative*, 퍼듀대학출판, 2009, 410페이지; 엘리자베스 콜, 역사의 그림자 속 교육, 역사, 교육과 역사적 정의 내 역사와 교육의 위치 *Education in the Shadow of history, Education, History education and Their Place in historical Justice* 워트레이트 미출판 편집본 초안 10페이지, 2010년 3월 3일; 키이스 바톤Keith C. Barton 신시네티 대학 교수, '마케도니아: 다시 말하는 역사Macedonia: Retelling the History' 프로젝트에

크로아티아, 세르비아 출신의 (젊고) 진보적인 역사교사들과 역사가자들이 참여한 [행동의 역사 *History in Action*] 유로클리오 프로젝트는 그 해 9 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개최된 국제평화의 날 행사에서 제 4 회 유럽·지중해 문화간 대화를 위한 수상 fourth edition of the Euro-Mediterranean Award for Dialogue Between Cultures 에서 2 위를 차지했습니다. 같은 해 행동의 역사 프로젝트의 산물 중 하나로 1945 년부터 1990 년까지 유고슬라비아역사에 관한 20 가지 교훈을 담은 공통교과서, [동서양의 유고슬라비아라는 비범한 국가의 평범한 국민, 1945-1990 년의 보스니아, 크로아티아, 세르비아의 역사 *Ordinary People in an Extraordinary Country, Yugoslavia between West and East The history of Bosnia, Croatia and Serbia from 1945-1990*]가 저명한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에라스무스 유로미디어 국가훈장 Erasmus EuroMedia Country Medal for Bosnia and Herzegovina 을 수여 받았습니다. 또한 유럽적 가치를 다룬 우수 언론출판물에 수여되는 유럽어워드 European Award for outstanding media publications 의 영광도 안았습니다.⁶ 며칠 전에도 이 프로젝트는 2010 교육혁신을 위한 카타르와이즈어워드 Qatar Wise Awards for Educational Innovation2010 의 후보명단에도 올랐습니다.⁷

하지만 방법론적 변화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책임 있고 혁신적인 역사교육을 위해서는 역사적 지식을 다루는 새로운 방법이 모색되어야 합니다. 즉 지리적 차원과 정치, 문화, 경제, 사회적 시각 간 균형을 잘 맞춰야 하며 전 지구적 시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유럽은 지리학적 개념으로 종종 이해되지만 사실 유럽역사는 일부 거대 서유럽국가와 러시아의 역사로 이해됩니다.⁸ 유럽에 국한시켜서 보더라도 많은 국가에서 유럽역사는 자국 역사의 부속으로 치부합니다. 하지만 문화적 유산 등 공통된 역사적

관한 2007년 평가보고서 http://www.euroclio.eu/site/index.php/macedonia-retelling-the-history-national-projects-221/materials-national-projects-231/cat_view/61-national/48-2006-2007-macedonia-retelling-history/419-reports-and-information; 게오르크 에크하르트 국제교과서연구소Georg Eckhart Institute for International Textbook Research가 2009년 개최한 “1992-1995 BiH” 에 관한 국제세미나에서 전 유고슬라비아 유로클리오 프로젝트의 팀원이 포괄적으로 평가를 내림 <http://www.euroclio.eu/site/index.php/georg-eckert-institut-associated-members-920/658-sarajevo-qbosnia-and-herzegovina-between-1992-1995q>, 네덜란드 온라인 신문 트로우Trouw의 2010년 7월 12일 기사는 전 유고슬라비아 유로클리오 프로젝트를 아래와 같이 다룸 http://www.trouw.nl/ opinie/commentaar/article3124781.ece/De_pijn_van_Srebrenica_kan_slechts_helen_door_erkenning_en_educatie_.html; 일부 UN 사무국과 유럽위원회가 2006년부터 2007년까지 진행한 ‘다시 말하는 역사’ 마케도니아 프로젝트와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에스토니아의 사회통합’ 프로젝트 수행 동안 발간한 출판물을 취합한 유럽, 중앙아시아, 북미의 학교시스템 내 인권교육: 우수사례 모음 *Human Rights Education in the School Systems of Europe, Central Asia and North America: A Compendium of Good Practice*, 2010

⁶ <http://www.euroclio.eu/site/index.php/bosnia-croatia-serbia-regional-projects-303>

⁷ <http://www.wise-qatar.org/en/2010-finalists> 참고

⁸ <http://www.euroclio.eu/site/index.php/resources/questionnaires-mainmenu-402?start=5>

2005년 유럽역사강의에 관한 유로클리오 설문 결과와 기타 정보 참고

경험을 다룰 수 있는 유럽프레임워크를 마련한다면 역사에 관한 전 지구적 접근방식으로 다가가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학교 역사교과과정에서 대부분의 주제들이 놀라울 정도로 긴 수명을 유지한다는 것은 흥미롭습니다. 예를 들어 유로클리오 발칸 프로젝트, [공통의 역사이해와 미래를 위한 배움(2000-2003) *Understanding a Shared Project, Learning for the Future*]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알바니아, 불가리아, 마케도니아가 19 세기 소개한 주제 중 상당수가 공산체제와 공산체제 이후의 교과과정에서도 다뤄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과과정 내용은 서서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 관한 역사와 이슬람권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민, 성평등, 상호포용, 인권, 다양성, 환경과 같은 개념이 이행 정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유럽 내 교과과정 토론에서 빈도 높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논의조차 되지 않았던 반인권 국가범죄, 식민주의, 노예제도 또한 유럽 교과과정에 서서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로클리오는 역사교육의 방법론과 내용 변화를 적극적으로 장려합니다. 이를 통해 폐쇄된 실증적 교수법이 아닌 개방적 서술 교수법에 입각해 역사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이행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유로클리오는 과거의 국가 또는 세계의 사건을 왜곡하고 희석하여 논란을 무마시키고 긍정적인 평가를 얻어내려는 시도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유로클리오가 장려하는 역사는 일방적, 편파적, 정치적 성향에서 멀어지고 점점 다차원적이며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향은 [유럽 내 이주에 관한 경험과 시각 *Experiences and Perceptions of Migrations in Europe (2009-2010)*] 프로젝트 일환으로 개최된 일련의 적극적 워크숍에서 잘 나타났습니다.⁹ [히스토리아나 *Historiana*] 프로젝트에서는 교실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웹툰이 제시되었습니다.¹⁰ 이 자료는 국가간 비교가 가능한 것으로 그 첫 주제는 ‘이동 중인 사람들 *People on the Move*’ 로 이주에 관한 것입니다. 프로젝트 성과로 나온 교재들은 연내에 이용가능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⁹ <http://www.euroclio.eu/site/index.php/overview-connecting-europe-306> 참고, 2011년 초 최종 보고서 발간 예정

¹⁰ www.historiana.eu 본 프로젝트에 관한 정보는 해당 웹사이트에서만 제공됨

정치적, 인종적, 종교적 내부갈등을 겪은 지역 또는 최근 폭력적 갈등을 겪은 지역이나 국가가 역사를 다루는데 있어서 다른 접근방법을 취할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역사는 다양한 시각이 존재하며 그러므로 논란을 야기하고 일부 주제들은 다른 주제보다 (훨씬) 더 민감하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일부 프로젝트에서 얻은 경험에 따르면 민감한 역사 역시 동등한 방법론으로 다룰 수 있습니다.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유로클리오가 운영한 키프로스에서 연수프로그램에서 그리스계 키프로스 강사와 터키계 키프로스 강사가 공동으로 키프로스 섬이 오트만제국에 점령당했던 1571년 상황에 대해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당시 상황은 그리스인의 기억에서 국가 최악의 사건 중 하나였습니다. 자국 중심의 역사적 사고 경향이 짙은 러시아에서 이제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다문화주의를 알리기 위해 문화의 모자이크 Mosaics of Cultures 팀(2003년-2005년)이 결성되었습니다.¹¹ 2008년 이전까지 숨겨져 왔던 1944년부터 1945년까지 티토 정권 하의 강제노동수용소와 학살에 관한 유고슬라비아 역사가 교과서에 실렸지만 이에 대해 보스니아, 크로아티아, 세르비아로 구성된 팀원들 사이에서 큰 논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¹² 유로클리오는 마케도니아에서 2001년 내전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내부 인종간 폭력적 관계를 포함한 최근 독립을 다룬 교과과정을 고안했습니다.¹³ 팀원으로서 우리는 이 자료를 마케도니아 수도 스코페 내에서 인종적으로 분리된 4개의 학교에서 온 15세에서 16세의 학생들이 어떻게 사용하는지 관찰했습니다. 학생들은 자신들의 인종을 선거구 기반으로 삼는 각기 다른 정당 프로그램을 고안해볼 것을 제안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유로클리오 교재는 학생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놀라운 창의력을 발휘하게 해주었습니다. 분명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학생들의 능력은 놀라웠습니다.

많은 사람이 주도면밀히 개발한 방법론에 근거한 역사교육은 매우 민감한 주제를 다룰 수 있게 해줍니다. 하지만 과거가 여전히 감정에 치우쳐 있는 상황에 처해있는 전문가를 위한 근무환경에 관해 더 많은 관심을 쏟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신뢰구축은

¹¹ 문화의 모자이크, 학교 역사교재(320페이지), 러시아 다문화 사회에 관한 교육을 다룸, 3000부 출판. 2005년 CD와 교사 매뉴얼로도 제작

¹² 적극적 학습과 강의 방식 이행과 비판적 사고를 위한 혁신적 지역 강의방법: 비범한 국가의 평범한 국민, 1945-1990년의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크로아티아, 세르비아의 역사 *Ordinary People in an Extraordinary Country, Yugoslavia between West and East The history of Bosnia, Croatia and Serbia from 1945-1990*. 보스니아어, 크로아티아어, 영어, 세르비아어로 출간

¹³ 독립 후 마케도니아 역사에 관한 주제적 혁신강의자료: 다시 말하는 역사, 밀란덴보스키Mladenovski, 니코사Niko Company, 스코페, 알바니아어, 영어, 마케도니아어 출간

기본적인 요소로서 안정적이고 호응적인 환경이 마련되어야만 전문가들은 민감한 때론 고통스러운 역사를 다룰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감정이 개입된 언어와 화술의 사용에 관해서도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는 비편파적인 개념과 언어사용을 옹호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특정 개념과 언어에 관한 학생들의 민감성을 고려한 프로젝트를 착수하기도 합니다. 보스니아, 크로아티아, 세르비아를 대상으로 한 프로젝트에서 ‘유고슬라비아’ 개념은 초기에 상당한 감정대립을 야기했습니다. 세르비아인들은 유고슬라비아 용어를 반드시 사용해야 함을 주장한 반면 크로아티아인들은 사용을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결국 유고슬라비아라는 단어가 불러일으키는 감정이 중요한 학습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 동의했습니다.

양질의 연구와 새로운 연구는 종종 역사교육을 편파적인 국가주의적 역사관과 거리감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2010년 8월 우크라이나 리비브에서 수 명의 동료교사들이 우크라이나 전통을 다룬 역사교과과정을 개설하고 우크라이나 사회의 과거와 현재의 다문화 요소를 역사교육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펼쳤습니다.¹⁴ 이들은 (새로운) 학문연구에 제시된 전문가적 견해를 활용해 흥미로운 일련의 교수법을 개발했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편파적 내용은 상당부분 해결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 저의 견해입니다.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희생자로 묘사되고 있는 반면 폴란드, 러시아 등의 사람들이 우크라이나 내 거대 유대인 집단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유한 유대인들은 다른 민족과 마찬가지로 세금을 낼 필요가 없었으며 우크라이나 인들은 토착민인 반면 다른 민족들은 이주자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정보를 가지고 역사교육을 통해 혁신적인 포용적 접근방식을 기대하기란 어렵습니다. 걱정하는 역사가들의 네트워크 NCH, Network of Concerned Historians가 마련한 역사가를 위한 윤리강령이 역사연구의 근본으로 인정되고 있지 않습니다.¹⁵

마지막으로, 정치적, 인종적, 종교적 긴장과 갈등을 겪는 지역에서 과거 해석에 관한 의견불일치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또한 중요한 문제입니다. 2002년부터 2004년까지

¹⁴ <http://www.novadoba.org.ua/history/?c=multicultural> 우크라이나어 참고 <http://www.euroclio.eu/site/index.php/projects-mainmenu-125/current-projects-mainmenu-32/we-and-the-others> 영어 참고

¹⁵ 안톤 드 비즈Antoon De Baets, 책임 있는 역사*Responsible History*, 2008. 역사적 과학에 관한 국제위원회 International Committee of Historical Sciences 회장 위르겐 코카Jürgen Kocka (2000-2005)가 서문 작성. 윤리강령은 http://www.concernedhistorians.org/content_files/file/et/148.pdf 참고

에스토니아와 라트비아에서 진행된 프로젝트에서 다인종으로 구성된 팀은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러시아 언어 지역체에서 서로 다르게 해석되는 일련의 주제를 규명했습니다. 에스토니아 자료를 근거로 저술된 [역사는 단순한 과거가 아니며 과거는 아직 역사가 아니다 *History is not only Past - the Past is not yet history*]라는 책은 “1940 년 구소련의 점령이었는가 자발적 결합이었는가?” 또는 “에스토니아 소비에트공화국은 독립국인가 그저 꼭두각시 소국에 불과한가?” 와 같은 민감한 질문을 던집니다.¹⁶ 라트비아 프로젝트에서는 [우리 라트비아, 여섯 가지 주제-역사교사를 위한 방법론적 보완서 *We in Latvia. Six themes. Methodical Supplementary Aid for History Teachers*]를 발간했습니다. 이 책이 다루고 있는 주제 중 하나는 ‘정체성’으로 라트비아와 발트 국가의 역사적 발전과 시대에 따른 인구정체성 변화의 맥락에서 다인종 요소에 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¹⁷ 정체성에 관한 장에서 최근 라트비아 사회에서 일고 있는 다른 사람(과거부터 존재했던 침략자)을 상대로 싸운 우리 (라트비아인)에 관한 편견을 비판적 시각으로 다루었습니다.

어려운 과거를 해결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시간입니다. 특히 전 유고슬라비아와 같이 분쟁 후 상황에서 더욱 그렇습니다.¹⁸ 보스니아, 크로아티아, 세르비아인으로 구성된 편집팀은 4 년간의 프로젝트 후 마지막 회의에서 코소보 사태를 단순히 삭제할 수는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역사교사와 역사가들로 구성된 이 팀은 코소보 사태에 관한 혁신적 접근방법을 이해하고 완성하는 것이 극도로 민감한 코소보 사태 문제를 다룰 수 있는 능력 배양의 전제조건임을 항상 강조해왔습니다. 이러한 결정이 코소보 독립 선언이 계류 중인 상황에서 내려졌음을 주목하십시오.

논란의 여지가 있는 민감한 역사를 다루는 일은 참가자의 진정한 시민적 용기를 요구합니다. 이러한 상황에 놓인 전문가들은 해당 지역 동료, 역사가, 역사교사, 정치인, 언론으로부터 공격받을 위험이 크기 때문입니다. 2007 년 11 월

¹⁶ 역사는 단순한 과거가 아니며 과거는 아직 역사가 아니다 *History is not only Past - the Past is not yet history*’ 교사용 교재. 에스토니아어 러시아어 출간

¹⁷ 우리 라트비아, 여섯 가지 주제-역사교사를 위한 방법론적 보완서 *We in Latvia. Six themes. Methodical Supplementary Aid for History Teachers*, 32페이지, 라트비아어 러시아어 출간

¹⁸ 비범한 국가의 평범한 국민, 1945-1990년의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크로아티아, 세르비아의 역사 *Ordinary People in an Extraordinary Country, Yugoslavia between West and East The history of Bosnia, Croatia and Serbia from 1945-1990*, 54 페이지

마케도니아역사교사협회 Macedonian History Teachers Association 의 회장은 마케도니아 국수주의의 철용성과 같은 마케도니아역사가 국가컨퍼런스 National Macedonian Historians Conference 에서 인종간 프로젝트인 [다시 말하는 역사 Retelling the History]의 성과를 발표하는 엄청난 용기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팽배한 회의적 시각과 일부 참가자들의 퇴장에도 불구하고 공통의 역사를 전달하기 위한 프로젝트의 모델의 강점에 대해 많은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었습니다.

민감한 역사를 다루는 전문가들에 대한 부정적 압력을 방지하기 위해 프로젝트 팀은 (상대적으로) 조용하게 임무를 수행합니다. 지역 팀이 입을 열 자신이 있을 때만 지역교육당국, 정치인, 반대파 역사가, 언론과 접촉합니다. 이러한 조용한 절차는 우리의 일이 외부의 간섭이라는 비난을 피하게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민감한 사안을 다루는 것이야말로 로버트 스트래들링 Robert Stradling 박사가 그의 저서 [민주사회 삶의 가치에 관한 핸드북 *Handbook on Values for Life in a Democracy*]에서 제안한 7 가지 절차적 가치를 필요로 필요합니다.¹⁹

우리는 프로젝트팀 구성원이 긍정적 태도를 유지하고 7 가지 가치를 준수할 것을 요구합니다. 일각에서는 이를 전향자를 위한 설교로 볼지 모르지만 많은 이들은 함께 행동하기 이전에는 그저 구경꾼에 지나지 않습니다. 유로클리오는 시작부터 배움과 변화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목표로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점을 배웠습니다.

우리의 접근방법이 역사교육을 통한 화해의 모범으로 충분한 자질을 지니고 있을까요? 몇몇 학자들은 최근 화해프로세스를 위해 각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기준을 개발했습니다. 저는 엘리자베스 콜이 [폭력적 과거에 대한 강의]의 서문에 제시한 기준을 따르고자 합니다. 그녀는 하인 Hein 과 셀덴 Selden 을 인용하며 역사교육의 내용과 방법론은 장기적 화해를 이끈다고 주장합니다. 즉 역사교육은 비판적 사고 고취, 단순모델에 관한 의구심 자극, 공감능력 향상을 가능하게 하고 폭력에 의지하지 않고 과거문제와 현 사회이슈의 시사점에 관한 해석에 불복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준다고 주장합니다.²⁰ 그녀는 여타 역사가들과 함께 역사교육은 학생들이 학파적 객관성을

¹⁹ 로버트 스트래들링 Robert Stradling 박사, 민주사회 삶의 가치에 관한 핸드북 *Handbook on Values for Life in a Democracy* (스트라스부르 Strasbourg, 2007). 품위, 호혜, 공정, 인내, 자유, 합리존중, 진실 존중 등 7가지 개념에 관해 설명

²⁰ 콜 Cole(교육), 폭력적 과거에 관한 강의, 역사교육과 화해 *Teaching the Violent Past, History Education and Reconciliation*, 2007, 21페이지

유지하며 과거에 다가갈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며 분쟁의 과거를 화해시키는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²¹

데이빗 맥도널드 David Macdonald 는 화해의 기회를 가능케 하는 미래요소에 관해 지속적으로 관찰합니다.²² 그는 바이로 Biro 와 밀린 Milin 을 인용하며 인종간 우호적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앞서 언급한 다양한 프로젝트에서 그가 언급한 인종간 우호적 관계 중요성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번은 크로아티아 팀원과 동행한 버스로 보스니아/세르브스카 국경을 지난 적이 있습니다. 국경주둔 경찰은 크로아티아 팀원들에게 무슨 일을 하느냐고 물었고 그들은 보스니아, 세르비아 동료들과 공통 역사교과서를 저술하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경찰은 서로 대화하는 것이 가능하냐고 물었습니다. 크로아티아 팀원들은 폭소를 터트리며 우리는 동료일 뿐 아니라 친구라고 대답했습니다.

평화구축기구 Peace Building Initiative 는 엘리자베스 콜을 종종 인용하며 ‘분쟁 후 기억과 역사의 전환은 시민의식의 새로운 정체성 형성에 중대한 역할을 담당’ 하며 ‘공동의 역사의식은 정체성 형성과 소위 화해프로세스에 있어서 핵심적 요소’ 임을 밝힙니다. 대부분의 국내외 연구자들은 역사교육의 근본적 목표는 시민의식과 이상적 과거와 약속의 미래에 관한 개념을 전달하는 것임에 동의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역사교육의 개혁이 거의 항상 과거 정치계의 대의제를 변화시켜 수용, 포용을 증진하고 비폭력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비판적 사고 능력을 고취하며 분쟁축발을 위해 조작될 수 있는 추정사실에 대해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시각에 관해 다룬다는 것은 그리 놀랍지 않습니다. 역사교육개혁은 ‘평화 (또는 평화구축) 교육’ 개념에 의해 보완됩니다. 평화 또는 평화구축교육은 학생들이 집단 내 또는 집단간 차이를 이해, 수용, 적응할 수 있는 교육프로세스를 지원합니다. 이러한 교육은 집단 간 긍정적 관계를 설정, 배양하는 동시에 부정적 관계를 배척하고 해체하는 2 중 프로세스로 이어집니다. 역사교육은 엘리트 계층에 국한되지 않으며 평범한 삶의 일부이자

²¹ 콜Cole(교육), 폭력적 과거에 관한 강의, 역사교육과 화해*Teaching the Violent Past, History Education and Reconciliation*, 2007, 22페이지

²² 찰스 인그레오Charles Ingrao와 토마스 에멀트Thomas A. Emmert (교육) 유고슬라비아 논쟁 대응, 학자간 계획 *Confronting the Yugoslav Controversies, A scholars' initiative*, 퍼듀대학출판, 2009, 391-398 페이지

일반시민의 일상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학교 등 중산층 또는 민초기관의 일부분으로서 화해프로세스에서 구체적 역할을 차지하고 있습니다.²³

정치적, 인종적, 종교적 긴장과 갈등을 겪는 지역에서 활동하는 동안 이러한 개념을 유로클리오 업무에 반영하고 있으며 그러한 과정에서 학계 전문가들이 제시한 수많은 요구조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스니아, 크로아티아, 세르비아의 5 개년 프로젝트 역시 이 지역의 소소한 논란을 해결하는 시작점에 지나지 않습니다. 2 차 대전과 90 년대 전쟁과 관련된 주요 이슈에 관해서는 여전히 다뤄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 지역의 많은 동료들이 2 차 대전을 교과과정에 포함시킬 준비가 되어있지만 90 년대 전쟁에 관해서는 주저하고 있습니다.²⁴ 이들은 엘리자베스 콜이 위트레흐트에서 2010 년 5 월 강의에서 말했듯이 희생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충족하는 것은 어려운 도전과제이며 이들의 고통은 교과서에서 밝혀져야 함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증오와 분쟁의지를 장기화할 수 있는 원인을 방지하여 새로운 세대에 부담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²⁵ 우리는 교실에 적용될 수 있는 접근방법을 모색하는 걸음마 단계에 머물고 있습니다.

평화구축기구 등 많은 사람들이 다음과 같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역사교육은 잠재적으로 화해를 촉진할 수 있지만 교과서가 개정되기 전에 일정한 단계의 화해가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 대중은 일각에서 신봉하는 역사관에 도전하는 개정 교과서를 수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교사들은 신뢰가 떨어진 역사관과 편견에 도전할 수 있고 교실에서 논쟁의 위험을 감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²⁶ 안타깝게도 이러한 민초적 방식은 계속해서 호응을 얻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일시적이고 종종 대중영합적인 정치적 입장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러시아에서 90 년대 전쟁에 관한 진보적 태도는 사라졌으며 근대사를 긍정적으로 해석하기 위한 새로운 전쟁이 정부, 역사가, 역사교사

²³ <http://www.peacebuildinginitiative.org/index.cfm?pagelD=1975>

²⁴ 유로클리오의 이러한 매우 민감한 주제를 다루기 위한 프로젝트 제안을 EU, 유럽안전보장협력기구OSCE, UN 문명간 연대UN Alliance of Civilisations, 벨기에 외교부에 제출. 안타깝게도 이러한 프로젝트 후원자들은 결단을 내리지 못함. 프로젝트의 모멘텀이 상실될 위험이 있음.

²⁵ 엘리자베스 콜, 역사의 그림자 속 교육, 역사, 교육과 역사적 정의 내 역사와 교육의 위치 *Education in the Shadow of history, Education, History education and Their Place in historical Justice* 위트레이트 미출판 편집본 초안 2페이지, 2010년 3월 3일

²⁶ <http://www.peacebuildinginitiative.org/index.cfm?pagelD=1975>

간 일어나고 있습니다.²⁷ 그루지아 정부는 새로운 교과서 저술을 장려해 학생들에게 지난 200 년간 러시아가 국가발전에 미친 부정적 영향을 알리고 있습니다. 유고슬라비아 문제에 있어서 마케도니아, 세르비아, 보스니아 현 정권들은 교과서 저술에서 균형 있는 시각을 도입하는데 내키지 않아하고 있습니다.²⁸ 이스라엘 교육부는 1 차 레바논 전쟁과 오슬로 협정은 교과서에서 실지 않은 반면 최근의 요르단 평화협정과 ‘20 세기 30 년간 유대인의 이스라엘 이주’ 문제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합니다.²⁹ 저는 가야 할 길이 멀지만 끝내 도달할 수 없을까 봐 걱정이 앞섭니다.

유로클리오의 업무의 효과는 어느 정도일까요? 우리가 우리의 성과를 얼마큼 주류화시킬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각 프로젝트마다 우리는 강사와 교사 훈련에 재원을 할당하고 역사교사협회는 프로젝트 결과를 확산시킵니다. 그러나 모든 전문가에게 다가갈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러므로 유로클리오의 동료중심의 풀뿌리 방식(peer and grass-root method)은 지속 가능해 왔지만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하다고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많은 경험적 연구와 분석을 통해 화해를 저해하는 또는 증진하는데 학교 역사교육과 지역공동체의 교육프로그램의 역할을 이해하고 평가해야 한다는 평화구축기구의 입장에 동의하는 바입니다.³⁰ 2009 년부터 유로클리오는 지난 20 년간 역사교육간섭의 결과에 관한 대규모 영향조사를 지지해왔습니다. 게오르크 에크하르트 국제교과서연구소 Georg Eckhart Institute for International Textbook Research 와 함께 이러한 질문을 살펴볼 수 있는 연구 프로젝트 착수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성급한 일시적 해결법은 교육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습관과 신념을 변화시키는 것은 까다롭고 민감한 작업이며 상당한 시간을 요합니다. 그러나 유로클리오가 수많은 유럽 역사교사들을 위한 성공모델을 제시하여 혁신적이고 때론 논란거리가 될 수 있는 교과내용을 다룰 수 있도록 도왔으며 학습과 강의를 위한 혁신적이고 협력적이며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유의미한 방법을 개발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역사교육 전문가들이 자신의 일의 중요성을 깨닫는다면 지속 가능한 세계를 지지하는 역사교육 방식을 개발하는데 더 큰 의지를 발휘할 것입니다.

- 본 논문은 유로클리오 프로젝트 관리자 블란딘 스밀란스키 Blandine Smilansky 의 협조로 저술됨.

²⁷ 2009년 메드페데프 대통령이 역사왜곡을 통한 러시아 국익침해 방지를 위한 위원회설립을 제안함. [EUROCLIO Website](#) 역사 뉴스 참고

²⁸ 2010년 3월 그루지아 교육부 웹사이트 참고. <http://www.mes.gov.ge/content.php?id=670&lang=eng>

²⁹ <http://www.haaretz.com/print-edition/news/first-lebanon-war-oslo-accords-missing-from-israeli-textbooks-1.298176>

³⁰ <http://www.peacebuildinginitiative.org/index.cfm?pagelid=1975>